

01.예배의 본질

호세아서 6:1-6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옴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4 예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부른 데에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실제로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위해서도 필요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필요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필요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필요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필요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이나 얘기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 신앙의 본질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그 모든 부분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으면 제가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가장 소중한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신앙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요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부분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하나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다시 한 번 보시죠.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애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mercy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됨으로서 사람에게 대한 긍휼, 사람에게 대한 자비 이렇게 이해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 새번역 성경도 인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뽑아다가 성경 전체를 거기다가 엮어 매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하더라도 호세아서에 나오는 한 부분을 뽑아다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전체인 것 모양 다름 모든 것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37-38)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에도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옆으로 가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옳은 신앙을 제시하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고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서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이 말씀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리만리 벗어나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아도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 이란 책에 보면 그 분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실재적이고 살아있는 개인적인 교제” 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제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를 성경구절을 나란히 대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구절 2개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그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저 혼자라도 아멘 하며 부지런히 설교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지금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면서 호세아 6장 이 구절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에 보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 십자가의 복음 책이 요단 출판사에서 나오면서 전국 서점에 배포됐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침례회보에 보니까 요단 출판사에서 침례회보에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 했더라고요. 어제 어디선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책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상담할 일이 좀 있는데, 시간 좀 잠깐 내 줄 수 있느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책이 그전부터도 나왔고 마스터 본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드리면 그분들의 반응이 뭘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모든 것이라고 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보다 ‘쉐마’ 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한 그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뭘니까?

이제 앞으로 더 상세하게 나옵시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고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서 당연히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그 올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구절 중에서 이 호세아서 6장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의식의 관계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신문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듯이 취재하는 것처럼 성경 읽어야 합니다.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이 신문을 읽는 만큼만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신문을 읽는 만큼만 성경을 읽으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셔야 하면?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것을 살펴봐야 하나면,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알듯이,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호세아서가 신약성경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더 이상 번제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 번제와 제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고,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으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쓰여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 문제는 호세아서가 구약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구약시대인데,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였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기분 좋으면, 야 가져와, 기분 나쁘면 싫어! 이런 분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드리라고 그러고 언젠가는 싫다고 그러고, 언젠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고 언젠가는 싫어하는 바라미워하는 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는 것처럼, 이것에 의문점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의문점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여러분 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가 이해되어져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당시에 드리는 이 짐승의 제사는 하나는 예배이기도 했고요, 하나는 헌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봉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와 봉사라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헬라어에도 '마르투레오' 라는 단어가 '봉사하다' 라고 쓰이기도 하고 서비스, 그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위십. 왜 어원이 똑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희생은 헌금도 되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봉사도 되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되기도 합니다. 예배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되기도 하고, 기도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의식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런 예배와 같은

이런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든가 성경을 읽는 거라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등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아주 잘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의식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담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그것이 헌금이든지, 예배든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본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이 의식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는 똑같은 시대라서 그 당시에 많은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즉, 많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속에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 본질이야!’ , ‘내가 원하는 건 본질이 없는 의식이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이 6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의식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본질만 있으면 되지 의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그게 안 중요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가 어제 이번에 부산에 다녀오면서 금요일 날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오후에 올라왔는데, 금요일 날, 그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 준 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 어머니가 목사님을 섬겼던, 그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목회자 사모는 안 되려고 그러면서 지금 남편이신 목사님이 5년 동안 쫓아다니는데도 도망 다녔대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목회자들에게 그걸 볼 때, 목회자는 너무나 존귀한 분이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목회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도망 다녔대요.

그런데 얼마큼 모하게 했냐 하면, 예를 들면 뭐 과일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나온 처음 좋은 열매는 딱 목사님 걸 봉지에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손대면 안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건 목사님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참 존경하던, 옆에 들으면서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 그러면 이게 다 잘못됐다는 말이나 그게!”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제가 목회자로 대접받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섬겼던, 순수하게 모했던 그게 다 잘못 된 거냐?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나?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신앙의 본질을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보내기 하러 갔어요. 왜? 본질이 중요하니까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십일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라 되어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헌금하잖아요. 당연히 십일조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뭐죠? 구제하는데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헌금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헌금으로 나가는 것만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어쩔 때는 100만원에 가깝게 헌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눌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어쩔 때는 어떤 수입이 생겼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십일조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한 만원, 2만원 되는 이런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받을 때요 하나님 십일조 얘기하세요. 아니, 100만원의 돈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만원이나 2만원 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십일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본질 얘기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기 쉬워요.

‘본질이 중요하다’ 예,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니까요. 꼭 그러기 쉽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떠나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하되, 그걸 떠나서 복 받으려고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습시다. 그게 타락하면서 그랬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분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 하나의 부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들이죠.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목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부분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본질이 없는 의식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러한 것은 다 의식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본질이 같이 가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십일조,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기도, 금식, 구제! 누구보다 뛰어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선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너무나 그들이 그 당시에로서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번 보시죠. 이사야서 1:15, 호세아서 1:1과 이사야서 1:1을 보면 같은 시대입니다. 한 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1:1보면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보시고, 이사야서 1: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보면 같은 시대입니까? 다른 시대입니까? 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라고요.

그 이사야서 1:1에 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 지어**’ (사1:10)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무수한**’이란 말이 뭐예요? 셀 수 없는 그 말입니다. 많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10-15 '11 무수한 제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선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예배를, 헌금을, 재물을 안 받으시냐는 겁니다. 왜?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와 같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신앙의 본질이 없으니까 이 많은 의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재직으로 임명합니까? 또 나중에 안수도 받으니까? 안수 집사님되고, 장로님도 되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십일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라면 그렇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자 그렇다 라면 이사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요.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은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로 그 달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드린 날이 월삭입니다. 모든 절기, 모든 대회를 다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보세요. 수송아지, 숫염소, 무수한 제물, 살진 짐승,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그들은 금식 일에는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다 금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께 많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못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보고 소돔의 백성이요, 고므라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를 참다운 선지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를 톱으로 쳐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뭐를 이해해야 이해 할 수 있냐하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이토록 많은 구제를 하는 그들에게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죠.

다음시간에 이것부분을 살펴볼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삭시대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달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처럼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인데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써 그 속에 본질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만약에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본질이 없으면 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중요합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이니깐요. 우리가 본질을 말하면서 의식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혼동되시나요. 안 되시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 할 때는 꼭 **결혼반지의 예**를 듭니다.

제가 결혼반지의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다이아몬드 2캐럿 짜리 반지를 선물해 줬어요. 대단히 비쌉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친구들을 만날 때만 끼고 가요. 보통 때문 안 끼요 아까워서...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기도 하고, 손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친구들이 보고 그거 진짜 다이아몬드니 하면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짜리고, 우리 신랑이 해주고, 속으로는 야 이런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 있어 나와 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랑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신혼여행 갈다 와서 얼마 안 되서 바람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반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 다이아에 굶주린 사람의 의미가 있을 줄 몰라도, 돈에 굶주린 사람은 의미가 있을 줄 몰라도, 팔면 꽤 값이 나가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지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반지는 이것은 의식과도 같고, 그 속에 본질이 뭐냐? 남편이 아내에게 준거라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 정결, 순결 이러한 부분들이 본질이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온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줄게 없으니까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금발의 머리밖에 없어서 남편의 시계 줄 없는 시계의 시계 줄을 사주려고 머리카락을 파라서 시계 줄을 사줬고, 소설에 나오는 애기잖아요. 남편은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시계 줄 없는 시계밖에 없는데 아내에게 선물을 해 주고 싶었는데 해 줄게 없어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을 사줬잖아요. 둘 다 선물을 풀어보고 울었겠죠. 그런 작은 빗이나, 작은 시계 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 뒤에 사랑이 담겨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반지는 그 반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본질인 사랑이 핵심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반지를 해 줬다 할지라도,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바람을 피운다면 이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게 그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본질이 없는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넷째,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즉,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4장, 그 시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 들 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두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해해야 같이 이해할 수 있고요. 같이 갑니다. 자. 본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 본질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에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가 신앙의 본질을 버렸으니"** 이렇게 번역하여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표현에 의하면 "네가 신앙의 본질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안식일 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빼놓지 않고, 월삭을 반드시 지킵니다. 모든 절기와 대회를 지킵니다. 올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정성을 모아서 살찐 짐승 수송아지 숫염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자, 그럼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들을 심판하는 게 당연하죠. 왜?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주일 날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읽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또 십일조를 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안 떠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했으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 요즘 성도들 신앙이 점점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일 날 대 예배 시간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외에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천 이백만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그 중에 몇 프로나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육백만 이상은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십일조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 이백만 기독교인 중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아마 반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토록 많은 예배와 제사와 헌금을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금식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과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아니, 어디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냐? 내가 지식을 버렸다고 했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설교를 하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여기뿐 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과 6장 호세아 뿐 만 아니라 여러 구절을 보면 영적인 법칙인데 신약이나 구약에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

히 역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구절 살펴 볼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이 이렇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지식을 버렸으니"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이해해야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구절들을 살펴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못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당연히 심판이 와야죠. 왜? 율법 공부도 안했잖아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대로 안살아... 율법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안 믿으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처럼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게요! 문제는 성경을 믿는다는 똑같은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잊었다는 말이 저들이 성경공부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진짜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회의만 하더라도 진짜 자기생각 자기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내 모든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체면과 내 입장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밖은 나두고 교회 안의 회의에서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서지 않으면요 실제로는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여기 보실래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봐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 뭐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요 안 될 거라고요? 안 될 거라고요.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셨을지라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 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언약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서야 그게 가능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겁니다. 그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전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면 뭐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로 불순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가. 그럼 우리는 불순종.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게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냐는 겁니다. 아, 그건 목회자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있죠? 환경을 보세요? 현실을 보셔야죠.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게 어렵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표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한번은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기집회에 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한 달에 15일을 교회에 철야 하시는 분이예요. 여자 분이신데요.

한 달에 15일을 철야할 정도니까 1년에 150일 이상을 철야하는 분이예요.

그런데 그냥 한 두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구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집은 엉망이래요.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때리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을 팽개치고 맨날 교회서 자니까 그렇죠? 억압이 있죠. 또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죠. 뻔해요.

뭐냐 하면 신앙이 본질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는 뭐고, 율법주의는 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는 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고,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해 줬어요. 별로 효과가 없는 줄 알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 주셔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받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제가 신학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 안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존재를 사랑하시는데 “신학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길래 바로 그거라고, 그게 핵심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한다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로 돌아서야 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근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신학 가라고 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느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처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상황에 성도들의 삶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살아가는 목적과 사는 자세와 태도, 삶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는 방법, 세상 사람들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불상이 있다고” 아니요. 나뉜 마음, 나뉜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욕심, 탐심, 탐욕, 돈에 대한 집착, 사람의 지 하는 것,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속에 지금 있는 억압들이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억압들이 성도들의 삶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 너무 너무 고갈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속에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가 문제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출발할지는 모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새로워 질줄 압니다. 저런 성경공부를 도입해서 하면 새로워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 떠나 있냐.” 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고,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성령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회복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세상의 사상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더 돌아가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전보다 더욱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본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회복 시켜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

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재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며,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